

“군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것” 안정적 수돗물 공급 ‘집중’

진안군의회, 지난해 의정성과·올해 의정방향 발표... 소통행보 이어가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장은 26일 2022년 의정성과와 2023년 의정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민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함께하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김민규 의장은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라는 3고(高)와 경기침체에 힘들어하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군민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겠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장은 26일 2022년 의정성과와 2023년 의정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제9대 진안군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후 6개월 동안 네 차례 회기운영을 통해 군민을 위한 안건을 60여건 이상 처리하며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9건의 군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용담댐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용담댐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소멸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진안군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청 주요사업장과 민원현장을 방문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섰으며,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진안군의회는 내실 있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기능강화에 노력했으며, 이를 토대로 소속직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에 힘써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2023년에도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과 열린민원실 운영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린의회·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실을 개편하고

의정활동 사례의 체계적인 관리로 민의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진안군의회는 진안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의원연구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부와 지역현안을 공유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민규 의장은 “2023년은 제9대 진안군의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유지경성의 자세로 진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일꾼들의 의욕이 솟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린의회·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실을 개편하고

무주군, 우리쌀 활용 전통 가양주·양주 교육

무주군이 전통주로 MZ세대를 위한 음주문화 트렌드를 선도한다.

무주군은 다음달 10일부터 25일까지 6회에 걸쳐 ‘우리쌀 활용 전통 가양주·양주’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전통 가양주의 주조 원리, 전통 음주 문화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죽이나 밥먹으로 직접 전통주를 제조 실습하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습 위주의 교육과 더불어 교육생이 접통주를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주 테이스팅 교육 및 부재료 응용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우리 쌀을 활용한 전통주 제조 교육이 변화하는 식문화에 대한 새로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 민선희 팀장은 “군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식문화에 농업인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린의회·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실을 개편하고

장수군,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 접수

장수군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

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사업 물량은 주택 35동, 비주택(축사·창고 등) 23동이며, 가구당 철거 면적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방치된 빈집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린의회·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실을 개편하고

무주군, 농어촌생활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무주군이 올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무주군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계곡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급수구역을 확대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군은 안성 수락지구 및 무풍 지성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식수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을 오는 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맑은물사업소는 423억5,600만원을 투입해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비롯한 안성부남지구 농업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무주설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구천삼거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락지구와 지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속도를 낸다.

설천면 삼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배출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오는 2023년 완공될 안성부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

발사업은 총연장 46.4km, 배수지 300㎡가 설치되면서 부남면 주민들의 식수난을 덜어줄 전망이다.

배수관로 14.7km, 가압 8개소, 감압 1개소를 설치할 무주설천지구 농업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구천삼거리지구(배수관로 8.7km, 가압시설 2개소)도 2024년 완공되며, 안성면 덕산리 수락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상수관로 2.12km)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무풍면 금평리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성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상수관로 1.25km) 역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으로 3월 중 착공 예정이다.

급수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식수난을 덜게 되며,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물 복지 실현이 기대된다.

무주군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김대성 팀장은 “이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린의회·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실을 개편하고



진안군 마이산 탐사 정화수 그릇에 역고드름이 맺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진안군 마이산 탐사 신비의 역고드름

진안군 마이산 탐사 정화수 그릇에 역고드름이 맺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밤부터 기온이 영하 17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2개의 정화수 그릇에서 7~10cm가량의 역고드름이 자라났다.

일반적인 고드름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지만 고드름은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자란다. 하지만 역고드름의 생성 비밀은 섀트 풀기 어렵다.

그릇 안에 담긴 물이 얼면서 위로 솟

구치는 고드름이 생기기 때문이다. 단지 그릇에 담긴 물이 얼기 시작하면서 부피가 커지면 덜 얼어붙은 표면으로 물이 밀려나오면서 역고드름이 생성된다고 추정할 뿐이다.

마이산 탐사 관계자는 “혹한이 닥치는 겨울에도 신비한 역고드름을 보기 위한 탐방객들로 붐빈다”며 “추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들러서 역고드름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린의회·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실을 개편하고

지역 소식통

진안군,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진안군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진안읍 연장리 원정장 마을, 정곡리 무우실 마을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내 마음에 차(茶)한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농사로 마음이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스트레스 완화로 심신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심신안정을 위한 마음건강 관리, 근력유지 동작 배우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 27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우울증 검사도 함께 시행해 관내 주민들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관리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린의회·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실을 개편하고

장수군, 제21기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장수군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제21기 장수군 농업인대학’에 참여할 신입생을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분야는 1학기 3과정(사과 30명, 포도 30명, 두릅 30명)과 2학기 2과정(양봉 30명, 쌈채소 30명)을 포함한 총 5과정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jatc.go.kr)에 공지된 입학원서를 작성해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접수하면 된다.

오는 3월에 개강 예정인 제21기 농업인대학에서는 농번기를 제외한 매월 2회~3회의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12월까지 진행된다.

올해 1학기에는 작년과 동일한 과정을 운영하며,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기술습득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처음 개설된 쌈채소반이 2학기에 이뤄져 관내 농업인들에게 전문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의회·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실을 개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